



고창군은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에서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 친환경 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수상... 자연생태환경 보전 모범 추진 성과 인정

고창군은(군수 박우정)이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에서 '친환경경영대상 공공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2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경영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이 상은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이해관계자경영 등을 통한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고객과의 정보공개를 전략적으로 실시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시상식에서 주민의 생활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구축,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한편 이를 위해 내부 공무원들의 의사소통에도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9년까지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신안군, 순천시, 보성군, 서천군과 추진단을 구성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등재가 완료되면 군은

유네스코가 인하는 세계자연유산 도시로 인지도를 더욱 높여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와 더불어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사업,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운곡팍사르습지 예코촌 조성사업, 인천감기수역 복원사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상호 부군수는 "고창군은 잘 보존되고 관리된 자연 생태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며 군 미래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부산 사상구 영호남 우호증진·교류 강화

민간단체·행정교류 확대 합의

순창군(군수 황숙주)과 부산의 사상구(구청장 송숙희)가 영호남 우호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에 나서 향후 상생발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8일 송숙희 사상구청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우호교류 방문단이 순창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청에서 양지역이 자매결연을 맺은 후 두 번째 우호교류 행사로 그동안 진행해오던 교류를 더욱 확대해 양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날 교류행사에는 송숙희 구청장을 비롯해 김두현 사상구의회 의장 및 의원, 사회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이다.

이날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진행된 우호교류 행사에 순창군측은 황숙주 군수, 이기자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사회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역간 민간단체 및 행정교류, 청소년교류사업, 지역특산물 판매 및 인솔동기, 생활체

육, 1사 1촌 자매결연 분야에 대해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화를 통한 양지역의 교류 확대를 위해 10월경 사상문화원의 순창 문화유적 탐방을 진행하기로 하고, 순창문화원 육천교를 취타대 등 공연단이 10월에 열리는 사상강변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순창군 오케스트라도 사상문화원 송년콘서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순창과 사상구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청소년 캠프도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기관은 새마을지회 동봉교류 생활체육 정기 교류전에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특히 양지역 축제 시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과 홈페이지에 각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에도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황숙주 군수는 "아직 일찍부터 순창을 방문해주신 송숙희 사상구청장을 비롯한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소중한 시간이 사상주민들이 순창에 대해 많이 알고 양 지역간의 교류확대에 밑거름을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울외식산업전 지리산권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1년에 단 한 번 단체급식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되는 정보의 장 '2016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조지환, 이하 지리산조합)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서 진행되는 '2016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 참여하여 지리산권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은 지리산권에 속한 7개 시·군(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의 7품7미를 포함한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업체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구매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추후 실질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5일째 현장에서 지리산권 시·군 대표 농특산물을 맛보고 체험하여 지리산권의 농특산물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지리산권 7품7미 체험단 참가자들이 연계홍보를 통해 우수급식외식산업전 방문하여 구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번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는 지리산권의 22개부스, 21개업체가 참여하며, 7품7미 등 지리산권의 우수 농특산물을 관람객과 출품사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리산조합은 지리산권역 7개 시·군의 관광 자원을 공동으로 알리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지리산 7품7미'는 남원시의 목기·추어탕, 장수군의 사과·한우고기, 곡성군의 멜론·참깨매운탕, 구례군의 산수유·다슬기수제미, 하동군의 녹차·재첩국, 산청군의 꽃감·약초버섯김, 함양군의 산삼·흑돼지삼겹살이 있다.

지리산조합은 2018년도부터 지리산권 통합연계관광 SW추진전략으로 연계관광 광역교통망(지리산 한바퀴 순환버스)구축,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사업, 지리산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지리산소 매장사업, 지역농특산물 공동판매장 도시안테나샵 운영, 통합문화축제 박람회 개최, 지리산 한바퀴 산악자전거길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귀농·귀촌 맞춤형 시책 '효과'

이사비·주택수리비 등 지원 도시민 유입 지난해 대비 158% 급증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귀농귀촌 1번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384가구 541명의 도시민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8%가 늘어났으며, 이 같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면 올해 800가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민의 유입이 늘어난 것은 이주지원 단계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시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선제적인 홍보를 통한 귀농귀촌 최적지 남원 일거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전북 수도권 홍보관 남원 홍보의 날 운영, 도시민 농촌체험 교육,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으로 도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SNS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귀농귀촌센터는 중간조직을 강화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역별, 품목별 선배 귀농귀촌 멘토 7명을 선정하여 농지 및 빈집정보, 영농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귀농인 주택수리비로 상반기에만 총 70가구가 1억5,800만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26가구가 51억9,800만원을 융자지원 받았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애로인 거주공간 마련이 눈에 띈다. 작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주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귀농귀촌 1번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지구 숲속 신규(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16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4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남원시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시책사업인 소규모 숲터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선호도와 관심이 매우 높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성공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7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을 2개소 추가로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 공모사업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거주공간, 교육공간, 실습농장을 한 곳에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체험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환경회와 집들이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재촌인을 통한 연고 귀농귀촌을 추진하고, 화합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 결과 올해 운영을 화신마을이 전라북도 귀농귀촌 최우수마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귀농귀촌 재능기부단은 사매면 서도역사 및 주변을 정비하고 함께 가꾸는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귀농귀촌 유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거주공간, 교육공간, 실습농장을 한 곳에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체험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귀농귀촌 1번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베리&바이오식품, 식이섬유 증가기술 특허 출원

난소화성 전분 활용 베리류 주스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식이섬유 강화 베리류 음료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 '물리화학적 처리에 의한 과·채류 식이섬유 및 기능성 증가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28일 연구소에 따르면 이 특허는 지난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교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난소화성 전분을 활용한 식이섬유 강화 베리류 주스의 상품화 기술 개발' 과제의 결과물이다.

지난 2014년 연구소와 베리팍 영농조합법인, 전남대학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교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자유공모 과제로 선정된 후 참여 기관 간 협의와 연구를 통해 복분자와 아로니아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베리팍 영농조합법인은 복분자와 아

로니아, 오디, 블루베리 등 다양한 베리류를 직접 재배하여 품질 좋은 음료를 생산, 판매하고 체험 관광을 통해 고창 베리류 산업의 6차산업화에 기여해온 업체다.

식이섬유는 섭취 시 소화·흡수되지 않고 콜레스테롤이나 독소 등 몸속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정상작용과 배변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를 하려는 소비자들 사이 큰 관심을 갖는 물질이다.

출시된 신제품의 원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채류를 이용해 식이섬유의 기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전처리 방법을 활용했다.

또한 항산화능력이 높은 복분자와 아로니아를 사용해 해독주스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전통시장 육성사업 보고회

고창군이 고창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사업심의위원회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28일 고창전통시장 내 고객편의시설 교육관에서 군 관계자, 상인회 회장 및 임원, 수석위원, 주관사인 (주)문화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시장'을 비전 삼아 △공동판매장 조성 및 직거래장터 운영 △시장투어 관광상품 개발 △특산물 개발 및 협동조합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진열 및 친절 교육 등 총 11가지 주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달 말 마중표를 찍는다.

보고회는 현장점검을 겸하여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보고회 후 직접 전통시장 곳곳을 다니며 과업내용의 이행 적합성을 검사하고 사업성과를 확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순창군은 2001년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온 개인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3,96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내 14개 시군 모두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물가상승과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 패달타 부여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시의원 초청 간담회

남원시는 28일 역대 시의원과 시장정안 공유와 지문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장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역대 시의원 30명을 모시고 시장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과 지문의 시간을 갖고 시장에 대한 고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 동력을 마련한다는 이환주 시장의 강조에 따른 것이다.

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11시부터 남원초조성, 한(韓)문화아트밸리 조성,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시장 각종 현안에 대해 이환주 시장이 직접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토론과 지문이 끝난 후 주요 현안 사업장 5곳을 방문하여 사업담당 실무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환주 시장은 "풍부한 시장 경험을 가진 역대 시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여 더 큰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서, 아동지킴이집 점검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지난 27일까지 1주간 관내 아동안전지킴이 28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근절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킴이집 표지물 훼손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자를 상대로 그동안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인사와 기념품을 전달하여 지역 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규은 서장은 "아동보호를 위해 관내 지킴이집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